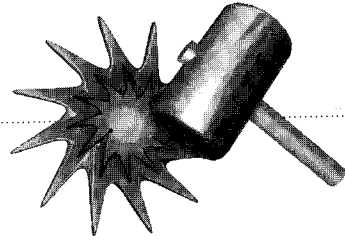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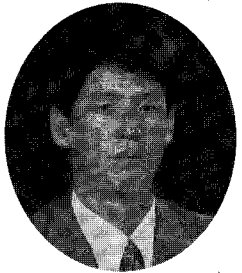


‘農高없는 農大’ 무엇이 문제인가 ?



‘농고 · 농전 · 농대’ 농업교육 위한 핵심기관으로 존재해야

전통적 농업학과 점점 줄고 농고졸업생 영농정착을 매우 낮아
우수 농학계 대학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화 학교 양성해야



김 명 찬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본 격적인 WTO 농업협상 진행과 시장개방의 가속화, 농산물 수요 둔화와 농가 소득의 불안정,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력이 감소하여 농업산업으로의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농업산업 현상과 학력위주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농업계 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업고등학교 수는 물론 입학자원의 감소, 농업전문대학 및 농과대학에서 비농업관련학과로의 개편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대 입시에서 추가 모집으로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위한 농업전문대 변화

서두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업 부문의 직업적 인기 하락으로 농업계 학과에서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적어지고 입학생 확보가 어렵게 되자 전문대학들도 학교 명칭을 실업전문대학으로 전환한다든지 4년제 대학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계속해와 10년 동안에 2/3가 줄어들었다.

전문대학 수준에서의 농업교육은 1979년 5년제 기술고등학교와 기

연도별 농전 및 농대 졸업현황

구 분	농업전문대학				4년제 농과대학			
	학과수	입학자	졸업상황		학과수	입학자	졸업상황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1986	80	5,123	3,613	1,146	187	8,798	4,974	1,827
1990	113	7,715	5,452	2,437	262	10,229	8,127	3,494
1995	51	3,827	3,021	1,792	254	9,737	8,265	4,154
2000	53	2,817	2,197	1,532	256	4,536	5,179	3,217

술전문대학 등이 통합되어 9개의 순수농업전문대학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한국농업전문학교와 연암축산원에대학, 여주전문교육원 등 3개교뿐이다.

농업전문대학 입학생 수도 또한 1986년 5천명에서 2000년에는 2천8백명으로 약 1/2이 줄어들었으며 2001년도에는 14개 전문대학에서 38개학과, 입학정원 총 2천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불과했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11%(1992)가 농림어업 부문에 취업하고 영농에 정착한 졸업생은 평균 6%로 파악되어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율보다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농업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농업생산분야의 학과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66.3%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생산분야의 학과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농과 관련이 없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원예조경과, 환경조경과, 동물자원과, 동물자원과학과, 동물과학과, 동물산업과, 자원동물산업과).

둘째, 전통적인 농업관련학과, 즉 식품가공 관련학과나 농업기계 관련학과가 줄어들고 조경 관련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14개교의 농업전문대학 중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들은 연암축산원에대학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전문교육원 등 3개교로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11%(1992)가 농림어업 부문에 취업하고 영농에 정착한 졸업생은 평균 6%로 파악되어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율보다 매우 낮다.

하여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영농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촌진흥청 산하에 3년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영농기반과 영농의지를 고려하여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이곳에서는 주로 1학년 때에는 전문 농업경영인이 되는데 필요한 교과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학년때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학년때는 해외연수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같은해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2년제)을 개설하여 채소경영과 및 과수경영과, 화훼경영과, 낙농경영과, 양돈



진 단 흔들리는 농업기반

경영과, 양계경영과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농산업부문 취업 10% 밑돌고
영농정착을 극히 드물어**

2001년도 농과대학 현황을 보면 31개 대학교에 44개의 농업관련 단과대학이 있으며 총 2백44개학과 9천6백여명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학생수는 1990년 1만여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5천여명으로 1/2이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집 정원에 미달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1990년대에 농학분야의 학문적 변화와 학부제 도입으로 1990년 2백56개 학과에서 2001년에는 3백75개 학과로 늘어나 농업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비해 농과대학 학과가 많이 세분화 되었음을 엿볼수 있다.

아울러 농과대학 및 학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국립대학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서울, 경기 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명칭은 모두 '농'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순수농학보다 관련학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분석하여 보면 초기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초급 농과대학을 개설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사립 농과대학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학분야의 학문적 변화와 학부제 도입을 통해 농과대학을 전환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992년 전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에 취업한 졸업생수는 전체 졸업자 대비 0.9%에 불과

하였다. 이는 타 단과대학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취업자가 1명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농과대학(농업전문대학 포함) 졸업자들 중 농업관련 산업으로 취업한 졸업생수는 10%미만이고 영농에 정착한 학생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전공분야 관심유발 위한 효율적제도 도입해야

물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열풍속에서 농업 고등학교와 농학계 대학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며 졸업후 진로 등 교육성과(output)에 초점을 둬에 따라 농업고등학교와 농학계 대학은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비생산학과 중심으로의 학과 개편 등으로 그 활로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부제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중심으로 개편되다 보니 비인기 전공이 사라질 위기에 있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농업관련 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계 학교의 체제가 그대로 계속되는 한 농업계 학교의 영농인 양성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농업인력 양성 체제의 역피라미드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72년 한국영농학생회가 결성되어 영농학생진전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농업계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참가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전문대학 및 농과대학 재학생들도 진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농과대학 규모의 연합체가 창설되어야 한다.

‘農高없는 農大’ 무엇이 문제인가 ?

또 농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의 관심도를 유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사 자격증’ 부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청년농업사, 지도농업사라고 칭되고 있으며 덴마크는 Green Educational Certificate, 프랑스의 BTA 농업 Diploma 등이다. 농업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소정의 심사를 통해 학교 위계별로 자격증을 구분하여 수여함으로써 농민후계자 선정이나 농민 교육에 필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고·농전·농대’ 교육 일관성 위한 농업교육체계 있어야

농업고등학교 및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으로 이어지는 농업교육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전문대학은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에 비하여 그 규모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가능한 입학자수와 현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의 농업전문대학 중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대학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학과편성을 영농정착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농과대학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과 기초교육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고등학교와 농업전문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연계대학, 영농학생진진대회, 농민재교육 등)을 마련해야 한다.

농과대학은 그 양적인 규모보다는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체질 개선은 물론 지역 농업현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농학계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농학계 대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농학계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특성화 학교가 집중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은 농업교육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4H 청소년 교육·후계자 교육 등과 농고·농전·농대 등 정규교육을 단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관된 농업교육 체계와 각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수행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농약정보**